일이 있을 때의 마음공부

그 남자의 목표는 성인이 되는 것

불교인들을 스스로 불제자라 부른다.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깨달으면 부처요 못 깨달으면 중생이다'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고 하는데, 곧 깨달으면 부처와 같은 성인이 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성인이 되는 일은 참람한 불경스런 일이 결코 아니라 권장하는 말이다. 그래서 인사가 '성불하십시오!'이다.

반면에 기독교는 이와 결을 달리한다. 예수에게 열 두 제자가 있어 기독교인들도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거나 제자로 불러지기를 좋아하지만, 자신이 곧바로 예수가 된다는 생각을 감히 못하는 것 같다. 그것은 예수를 신격화하여 삼위일체의 하느님 가운데 한 분으로 본다는 신학의 영향 때문이다. 예수가 하느님이기 때문이다. 하느님과 인간은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여서 인간이 하느님이라는 생각은 불

경스럽고 교만한 생각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예수의 인격만 닮아갈 뿐이다.

이와 상반되게 동학(천도교)에서 '사람이 곧 하늘이다[人乃天]'라는 말은 인간이 수양을 통해 도달하는 경지만이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가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뜻으로, 성리학에서 말한 성즉리와 형식적인 논리의 측면에서 볼 때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유학에서는 본성만 가지고 말하면 이미 성인이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 현실화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성인과 범인이 구별된다. 불교 또한 그렇다. 동아시아 학문과 종교에는 대체로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유학에서 성인 되겠다는 꿈은 당연한 일이다. 이에 대한 일화가 하나 있다.

중국 명나라 때 왕수인王守仁(1472~1528)은 양명학陽明學을 창시하여 한 시대의 사상계를 이끌었다.

그는 학자이자 관료이며 군사 전략가이자 교육가 그리고 문학가이기도 하다. 수많은 제자를 길러내어 후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

열두 살 북경에서 서당에 다녔는데, 언젠가 왕수인이 서당의 선생에게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까?"라고 묻자, 서당 선생이 말하였다.

"과거에 합격하여 벼슬이 높아지고 어버이의 이름을 세상에 떨쳐 부모를 높이는 것이라면 최고의 일이지."

"과거에 합격하여 벼슬이 높아지는 사람은 세상에 많이 있는데, 어찌 최고의 일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너는 무슨 일이 최고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자, 왕수인이 대답하였다.

"오직 독서하고 배우는 일을 통해 성인이 되는 것이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이 일을 듣고 웃으며 말하였다.

"네가 성인이 되려 한다고?"

성학聖學은 성인이 되는 학문이다. 선생이 선조에게 『성학집요』를 지어 바친 것도 그런 의도이다. 여기서 왜 성인을 거론 했느냐 하면 바로 『서경』의 다음 글 때문이다.

"성인이라도 생각이 없으면 미치광이가 되고, 미치광이라도 생각하면 성인이 된다."

미치광이라도 '생각하면' 성인이 된다는 말은 대단히 파격적이지 않은가? 이에 대해 어떤 학자는 성인되기가 참으로 쉽지 않지만 미치광이라도 생각만 할 수 있다면, 성인이 되는 공부에서 그 방향만은 안 것이라고 여겼다. 바로 생각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생각이란 앞에서 보았듯이 일이 없을 때는 정좌만 하고 털끝만 한 생각도 안하려고 하지만, 이 글에서는 일이 있거나 있고난 뒤에 하는 일이다. 그것이 성찰省察에 관한 일이다. 그렇다면 성찰이란 무엇이고, 또 경敬과 성誠과 무슨 연관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결과는 또 어떤 모습일까?

마음이 주인노릇 하게 하라

길을 가다가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누가 다쳤구나.'라거나 '어디에 불이 났지?'하고 생각한다. 해외여행을 가서 진기한 광경이나 물건을 보면,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어디 그 뿐인가? 뛰어난 예술품을 감상하다보면 마음이 온통 거기에 쏠린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마음을 쏟는 거야 탓할 일은 아니지만, 자신의 본심이나 주체성을 잃을 정도로 외물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마음의 주재를 확보하려는 유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활동하는 중에라도 외물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었다. 맹자는 공자의 말을 인용하여 "잡으면 보존되고 놓으면 없어져서, 들어오고 나가는 데 정해진 때가 없고, 그 방향을 알지 못하는 것은 마음일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마음은 일이 없을 때도 그렇지만, 활동을 할 때는 더욱 외물을 따라 움직인다.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촉발한다. 그 사례를 선생은 『대학』에서 찾는다.

> 마음에 분노하는 것이 있으면 마음이 바름을 얻지 못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면 바름을 얻지 못하며,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있으면 바름을 얻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으면 바름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

자, 이처럼 어떤 대상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마음이 바르게 되느냐 그렇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주희는 "분노와 두려움 등 이 네 가지는 모두 마음의 작용으로 사람에게 없을 수 없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것이 있는데도 살피지 않는다면, 욕심이 발동하고 감정이 넘쳐서 그 작용이 마음의 바름을 잃게 한다."라고 하여, 바로 여기서 '마음을 살핀다'는 성찰이 등장한다.

또 주희는 "내가 소년 시절 동안同安(지명)에서 살았는데, 밤에 종소리가 울리면 한 번 친 종소리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이 마음은 이미 달리기 시작했다. 이것을 두고 경계하고 반성하였다."라고 하여, 일어난 일에 대해서 '경계하고 반성하는 것'도 성찰이다. 성찰이란 일이 있을 때 즉각 살펴 바로잡기도 하지만, 일이 끝난 뒤 살펴서 바로잡는 반성反省도 되돌려 살핀다는 뜻이니 이 또한 성찰의 일이다.

그런데 앞의 『대학』의 인용에서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에 대해서 주희는 "마음이 보존되어 있지 않다면 주재자가 없어서 그 몸을 잡도리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마음이나 또는 그 감정이 잘못되었는지 살피려면 그 마음을 감독하는 기능이 있어야 함을 말했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 단속의 요령〉에서도 설명한 경敬(공경)이다. 그러므로 경이란 일이 없을 때나 있을 때를 막론하고 마음을 잡도리하는 기능이다.

이 경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이 몸을 주재하는 주체성 확보이다. 이에 대해 주희는 마음이 몸의 주인 노릇하는 주체성을 확립하고 있어야 모든 몸의 작용을 통제하고 이치에 맞는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사실 이러한 경의 강조는 물론 『논어』와 『맹자』에도 보이는데, 이때는 부모를 잘 모시는 것과 같이 행위의 외적 태도를 강조하는 '공경恭敬'에 가깝다. 이와 달리 『주역』에서는 "군자는 경으로써 내면의 마음을 곧게 하고 의로써 외면의 행실을 반듯하게 한다. 경과 의가 확립되면 덕이 고립되지 않는다."라고 하여, 경이 내적 태도로서 개념이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정이는 "의가 밖으로 나타난다고 함은 의가 밖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경과 의가 연결되어서 비로소 그 덕이 풍성한 것이다."라고 하여, 결코 경을 떠나서 의를 말할 수 없다는 뜻이다. 『예기』에서도 "경으로서 게으름을 이기는 이는 길吉하고, 게으름이 경을 이기는 자는 멸망한다. 의가 욕심을 이기는 자는 순탄하고, 욕심이 의를 이기는 이는 흉凶하다."라고 하여 『주역』처럼 경과 의를 중시하였다.

이에 대해 선생은 "정신을 집중하는 경은 마음의 본체이며 의를 행하는 것은 작용이니, 사실은 경이 의를 행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내면을 곧게 하는 경은 경으로써 마음을 보존하는 것이며, 바깥 행동을 반듯하게 하는 의를 행함은 경으로써 일에 응하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맺었다. 경이 내외를 관통하는 마음의 주체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간사함을 막고 성실하라

앞에서 일이 없을 때는 함양으로, 일이 있을 때는 성찰로 공부하지만, 이 둘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 경이라고 설명하였다. 이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바르게 하는 정심正心의 방법이다. 이제 앞서 선생이 언급했듯이 이것을 『대학』의 '뜻을 성실하게 한다'는 성의誠意와 관련지어 보려고 한다.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은 마음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방법으로서 경과도 관련이 있지만, 마음이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상태와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을 위함이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마음이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한 것이 바로 성실이다.

성실은 주희가 풀이하였듯이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마음의 상태이다. 하늘이 그렇듯이 인간도 그래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관련해 『주역』에서 공자는 "간사함을 막고 성실을 보존한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간사함은 성실과 서로 상반되는 뜻을 가졌으므로 거짓의 의미로 보면 되겠다.

이에 대해 정이는 "간사함을 막으면 성실은 저절로 보존 되니, 사람이 집의 담장을 수리하지 않으면 도둑을 막지 못하는 것과 같다. 동쪽에서 들어오는 도둑을 쫓으면 다시 서쪽에서 들어오고, 한 도둑을 쫓으면 다른 도둑이 들어오니, 담장을 고쳐서 도둑이 자연히 이르지 않게 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그래서 간사함을 막고자 한다."라고 하여, 마음에 있어서 경을 담장으로, 간사한 것을 도둑으로 비유하고 있다.

또 공자는 『논어』에서 "시詩 삼백 편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생각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필자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교과서에 등장하는 누군가의 글 속에서도 일찍이 보았던 말이다. 시에 간사함 또는 거짓이 없다는 말에 대해서 유학자들이 장황하게 도덕적으로 풀이하고 있으나, 이와 다른 견해도 있다. 사실 공자가 편집한 『시경』의 노랫말은 고대의 유행가 가사이므로, 도덕적 교훈보다는 자신들의 삶을 진솔하게 노래한 내용이다. 따라서 진정한 문학은 각자의 삶을 거짓 없이 표현한 것이므로, 거짓이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필자도 경험한 것이지만 자신의 삶을 미화하거나 거짓으로 꾸며 글을 쓰려면 글이 되지 않는다. 있었던 경험을 솔직하게 드러내면 글이 술술 풀린다. 물론 꾸밈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꾸밈이란 것도 있었던 일을 약간 윤색하는 정도이고, 또 자기의 일이 아닌 타인의 일처럼 꾸민다는 점에서 픽션이라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내용을 재구성하거나 달리 표현한 것뿐이다.

어쨌든 공자의 이 말에 대해 정이가 "생각에 간사함이 없는 것이 성실이다."라고 풀이한 것은 실로 문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도 제대로 보았다 하겠다. 이렇게 성실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 핵심이자 목표이다.

하느님을 볼 자

이제 기독교 성서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라는 말 대신에 "성실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느님을 볼 것이다."라는 말로 바꾸어도 뜻은 통한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진실하고 거짓이 없다는 것과 통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느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환상을 통해서? 아니면 죽은 뒤 천국에 가서? 그것도 아니면 그 당시 살아있던 예수를 하느님으로서 제대로 본다는 의미일까? 필자는 성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한국 민족종교의 관점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동학의 교조 최제우崔濟愚는 인간은 천주를 모신 존재로 여겼는데, 그 천주란 다름 아닌 지극한 기운으로서 지기至氣였다. 제2대 교주 최시형崔時亨은 사람만이 아니라 만물도 천주를 모신 존재로 확장했고, 제3대 교주 손병희孫秉熙는 우주의 성품을 인간도 갖고 있으므로 결국 인간도 하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날마다 하느님을 보고 산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거나 성실하지 못해서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예수를 동학 식으로 이해하면 하느님의 모습을 온전히 구현한 신인神人이다. 우리도 깨달아 예수처럼 산다면 그와 동일한 존재로서 하느님이다. 그건 하느님으로서 천지의 화육化育에 동참하는 존재이다. 문제는 그걸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달려 있다. 그 관문이 성실이다.

인간은 성실할 때 비로소 하늘과 함께 하게 된다. 유교식으로 말하면 천리를 온전히 발현하여 실현한다.